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박 상 호

2. 춘천대첩의 영적인 의미
4. 우리의 선교대상 군선교
5. 영역선교화와 국제 네트워크화
8.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나라의 자식이다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6년 6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91호**

하나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일꾼으로

녹색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생명의 계절 6월은 불행히도 6.25 전쟁이라는 죽음의 비극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과거처럼 반공 의식은 강화하지 않더라도, 전쟁의 기억은 한국국민의 의식 속에 어쩔 수 없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는 종종 분단의 상황을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용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 6.25를 지나 유신 독재정권과 문민정부를 지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과제와 신앙적 소명을 부여 받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랑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이 땅을 평화의 등산으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시대적 신앙적 책임을 지고 있다.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일꾼

일전 선거를 통해 느끼듯이 가장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지역주의' 및 '지역감정'의 문제다.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화해와 일치가 아니라 차별과 근거 없는 미움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품는 것이 지나친 일이라면 좋겠다. 크리스천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크리스천인 나로 인하여 불화와 분열의 상황이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란다.

통일한국의 일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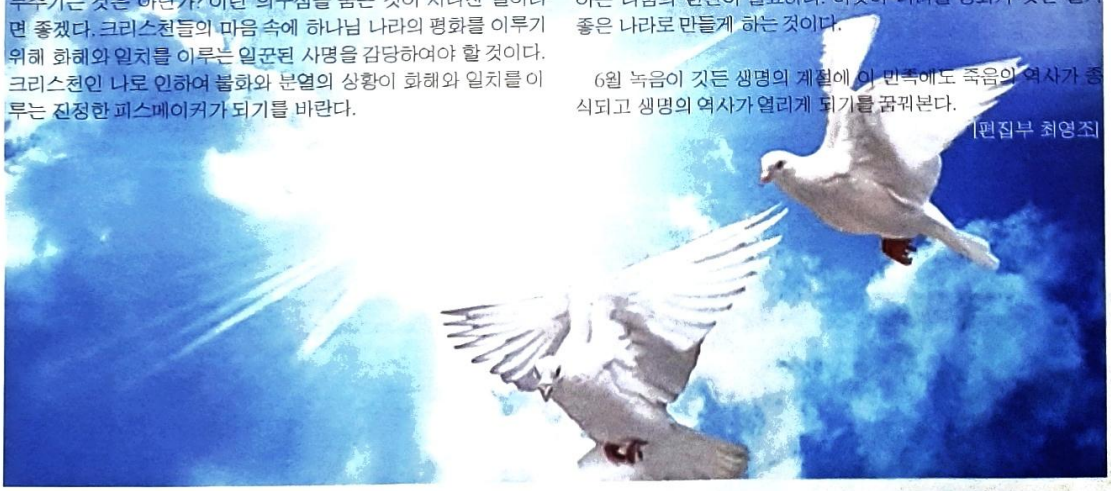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열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분단의 체제 안에 살면서 여기에 길들여져서 북의 동포를 은연중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다. 북한을 사랑하되 신앙의 형식으로만 사랑할려고 한 모습은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통일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 모두와 나누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나눔 일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나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산권 문제였다. 동독에 두고 온 재산을 도로 차지하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함은 물론,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보상까지도 실시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 불안과 심리적 좌절로 이어져 통일 속에서도 또 다른 분단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다. 북에서 내려온 많은 분들 중에는 아직도 땅문서를 고이간직하며 자신의 땅을 되찾을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 자기 것을 포기하는 나눔이 없이는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없다. 지금부터 자기의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나눔의 헌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라를 평화가 깃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6월 녹음이 깃든 생명의 계절에 이 민족에도 죽음의 역사가 종식되고 생명의 역사가 열리게 되기를 꿈꿔본다.

[편집부 최영조]



이달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 새로 선출된 시장과 시도위원들을 위해
새로운 시장, 시도의원들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선의의 경쟁을 하였던 모든 후보와 시민들과 함께 화합과 통합을 이루며 축복된 춘천을 일궈 나갈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마음이 임하도록

·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혼란을 겪고 있는 정치권이 바르게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도시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쓸 수있는 정당들이 되도록

· 홀리클럽 10주년 기념축제를 위해
그동안 춘천을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비전의 홀리클럽이 전국 29개 도시와 외국 8개 나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이번 6월 9일 10주년 기념 축제에 오는 오징현, 명성훈 목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를 통해 교회가 하나되고 각 영역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홀리클럽이 되도록

· 북한의 봉수교회를 위해
춘천의 영적지도자들과 전국의 목회자 평신도들이 북한의 평양봉수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다. 안전하게 돌아와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워지며 1907년 일어났던 부흥의 불씨가 춘천에 떨어질 수 있도록

· 효과적인 인도와 일본의 선교를 위해
인도의 가나안농군학교의 설립을 이루며 만들어지게 될 강원대학과 연세대학을 중심의 인도대통령의 자문기구와 함께 한국학연구소가 원활하게 세워지며 10월 성시화 주간에 있게 될 일본의 메시야 팀의 방문을 통한 선교의 불이 춘천에 임할 수 있도록



특집 I

춘천대첩의 영적인 의미

춘천은 갈라진 남북의 아픔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강원도의 수부 도시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가장 중요한 대첩이 일어났던 접전지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개전 초기에만 해도 대한의 남북한 젊은이들 1만명 이상의 처절한 피가 뿌려진 가슴 아픈 도시이기도 하다.

2006년은 처절했던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56주년이 되는 해. 우리는 이제 이 춘천 대첩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당당한 춘천의 정체성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남북의 고통과 갈등의 해결과 치료를 위한 균형을 잃지 않은 바른 통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 기도하는 6월을 맞이하여 당시의 전쟁의 모습을 되살려 보며 또한 이 시대의 숙원이 통일의식에 대하여도 바른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춘천에서 있었던 6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전투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를 '춘천대첩'이란 이름으로 재조명하며 새롭게 중요성을 인식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민족과 민주주의를 살린 역사적인 전쟁사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쌍용 공병부대의 김용규 여단장은 2005년 춘천대첩 기념 학술 심포지엄의 발표에서 대첩이라 할 수 있는 전투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붙이는 단어로 단순히 크게 이김을 표하는 말이 아닌 "병력과 장비가 열세인 가운데 큰 성과를 놀랍게 거두거나 어떤 전쟁의 전세를 역전 시키거나 전환점을 가진 전투일 경우 특별하게 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상 춘천전투는 대첩이었다. 국군 제6사단병력 약 9300명이 북한군 최정예 제2군단 약 38000명을 격퇴하는 전과인데, 한국군 개전최초로 승리한 전투이기도 하며 이 전투를 통해 북한이 세웠던 작전의 의도-춘천과 홍천을 통해 이 병력을 수원으로 보내 서울을 탈취하고 3일 등안 기다리던 제 1군단 병력과의 연동작전으로 앞뒤에서 아군을 포위 공격하여 당시 한국군의 대부분 주력을 섬멸시킴으로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8월 15일 이전에 끝내겠다-는 북한 수뇌부들의 야욕을 완전히 꺾었던 전투라는 것이다. 즉, 이 춘천대첩을 통해 국군의 주력을 격멸하는데 실패함으로 단기결전이 무너졌고 아군은 이 전투를 통해 반격할 수 있는 용기를 되찾았으며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전투는 아주 다양하고 넓은 장소에서 치러졌다. 즉 제1옥산포 전투를 시작으로 우두산 전투와 내평리 전투 그리고 소양강 도하저지전투와 춘천시내 방어 및 원칭고개-말 고개에서의 전투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이때 전쟁영웅인 심일 중위는 도로변 소나무 숲에서 대전차포와 육탄공격으로 적 SU-76 자주포 2대를 파괴하게 되면서 아군에게 전차에 대한 공포심을 제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대첩엔 특별한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군인들만의 전투가 아닌 시민전체의 항전이었다는데 그 의미가 높다. 그예로 한 달 전부터 진지 공사를 위해 춘천고 농공고 춘천사범고 춘천여고 등의 학생들 약 2500여명이 동원되어 땀을 흘리며 완전하게 진지를 구축함으로 전쟁의 터전을 만들었다. 또한 제16야전포병대대의 공격을 위해선 포탄과 탄약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목숨의 위기가 있던 이 시기에 소양강 건너편의 제사 공장의 여공들과 춘천 사범학교 학도호국단의 단원들이 함께 탄약운반을 위해 자발적인 수고를 하여 여발의 포탄과 기관총 및 소총탄약 등을 운반하였으며 군인들의 전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인근주민들도 함께 모여 군인들을 위해 주먹밥을 지어 만들어 공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한 놀라운 전쟁이었다.

더욱 내평리 전투에서는 경찰관 12명과 대한 청년단 등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적의진출을 저지하는 등 시민들과 학생들 군인이 하나 되어 위대한 일을 이뤄낸 것이 바로 춘천 대첩이다. 물론 철저한 훈련과 함께 포병들이 보병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전투를 하는 등 대단한 희생정신을 발휘했던 것도 사실이다.

춘천대첩은 후에 한국군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비록 후퇴를 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대열과 대오가 흐들리지 않는 등 한국군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 대첩은 한국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춘천에 있던 군인들과 시민들의 승리였다.

지금 춘천은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역대 이래 춘천은 단결의 상징이 이뤄졌던 놀라운 선조들의 손길이 있는 곳이다. 제4차 몽고항쟁에서도 마찬가지를 보여주기도 했고, 이번 춘천대첩에서 보여준 단결력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군의 주력부대를 보호함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교두보의 역할을 아주 흡족하게 함으로써 미국을 위시로 한 16개국의 유엔참전을 가능하게 하였고, 전선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루다가 후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때 그 역사적인 의미와 사실들과 함께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1. 춘천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만명 이상 피 흘린 역사의 아픔이 생생한 현장을 통해 민주주의와 현 한국의 바른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2. 엄청난 희생이 따랐던 그 처절한 전투를 통해 원망하며 닫힌 마음으로 공산주의와 북한을 대할 것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을 위한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품고 바른 통일을 위해 의논하고 통일감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며, 또한 통일을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이뤄나가야 할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본다.
3. 용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통일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바른 교육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전세계적인 통일한국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데에 꼭 필요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편집부 조영춘/자료제공 김용규 여단장]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김춘배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비타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06 사랑의 집짓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여러 현장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 주위의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땀방울을 흘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일시 : 5월 1일 ~ 9월 30일
♣ 모집장소 :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62- 6번지(상천초교 뒤)
♣ 대 상 : 각 교회, 단체, 중·고등학교, 대학생(만16세 이상)
♣ 모집인원 : 한국 해비타트 홈피 참조
♣ 문 의 : 춘천시지회 254-0009
♣ 신청방법 : 자원봉사자는 봉사 7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기 타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후원계좌 농협(예금주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 춘천지회) 203 - 01 - 532101 계좌로 자유롭게 1구좌 3천 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10돌을 맞는 춘천 홀리클럽

1972년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어난 춘천 홀리클럽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게 됐다. 1995년 당시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있던 전용태 장로는 전도운동이 성시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새로 등록한 인사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모임을 갖게 된 것이 홀리클럽의 시초가 되었다.

1996년 6월 8일 정식으로 홀리클럽을 창립하면서 당시 강원일보 사장이며 순복음춘천교회 장로였던 조남진 장로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였으며, 전용태 장로와 법원장이었던 양인평 장로가 힘을 합하여 춘천 홀리클럽 발전을 위해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 후 허 천 장로와 조은제 목사가 뒤를 이어 회장으로 섬기면서 조직 개편에 필요성을 느끼고 성시화운동의 동역할만한 평신도들 영입에 힘을 썼다. 춘천 홀리클럽은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수차에 거친 창립 기념 축제를 개최하고 타지역 홀리클럽의 참여와 방문을 받으면서 모(母)클럽으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2005년 12월 28일 춘천 홀리클럽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재건 총회를 개최하여 새 임원을 개선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임원회와 월례기도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운동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춘천 홀리클럽은 오는 6월 9일 춘천안디옥감리교회에서 자체적인 기념축제로 포럼과 기념 성회를 개최하게 된다. 특별성회에는 오정현 목사(서울 사랑의교회)가 강사로 초청되었고, 성시운동포럼은 명성훈 목사(인천 성시교회)가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1. 월례기도회

제1회 기도회는 지난 2월 3일 오전7시 평화감리교회에서 53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한균 목사의 "팔복"의 설교로 뜨거운 감동을 받고 성시화운동의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제2회 기도회는 3월 30일 오전 7시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도회에서는 원종극 목사의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모든 회원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으며 성시화운동의 재 점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날 새벽 춘천홀리클럽 기도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용태 장로(홀리클럽전국연합회장)는 춘천성시화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앞으로의 과제와 춘천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통해 춘천성시화운동에 대한 사명감을 일깨워주었다.

제3회 기도회는 5월 26일 오후8시 순복음춘천교회 교육관에서 6월 9일에 열리게 되는 춘천홀리클럽 창립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임원회와 간담회를 한 후, 9시부터는 순복음춘천교회 철아기도회를 홀리클럽과 성시화를 위한 특별 기도회 시간으로 배려해 주셔서 3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기도회에는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영길 선교사와 함께 루이스 부시 목사가 방문하여 말씀을 전했다. 로잔 대회의 주요강사로 활약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뜨겁게 활약하는 세계 선교의 영적 지도자 루이스 부시 목사는 춘천이 한국과 세계 성시화운동의 근원지이며 이 운동의 영적인 생명수가 춘천에서부터 솟아나서 수도서울과 전국으로 흘러가고 한국의 성시화운동이 세계로 전파되기 때문에 춘천성시화가 모델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 춘천 홀리클럽 운동의 방향

1) 기도와 선교 운동
2) 행복한 가정 회복 운동
3) 퇴폐풍조 추방 운동
4) 공중도덕 준수 운동
5) 정직 운동
6) 미신 우상 타파 운동
7) 청소년 선도 운동
8) 청정 환경 보존 운동
9) 경천 애인 운동

3. 춘천 홀리클럽 회원의 구호

우리는 주님의 부름 받은 홀리클럽 회원임을 자부한다. 성시화를 위한 우리의 고백과 다짐이 씨가 되어 이 고장 춘천이 거룩하고 행복한 도시로 바뀌어질 것을 내다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치는 바이다.

1.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인 춘천 성시화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2. 기도와 전도운동이 성시와의 지름길임을 믿고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동참하자.
3. 음주, 마약, 음란, 폭력, 도박과 같은 퇴폐풍조를 이 땅에서 추방하자.
4. 인간의 삶의 복음자리로 만들어 주신 지구 자연환경을 관리하고 보존하자.
5. 공중도덕심 함양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 실천하자.
6. 믿음과 사랑으로 이해하고 회목하여 행복한 가정천국운동을 힘 있게 전개하자.
7. 망국의 미신 우상을 타파하고 경천애인 정신으로 굳게 무장하자.
8. 거짓과 사치의 거품을 빼내고 근검 저축 정직운동을 실천하자.
9.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생명력 있는 교육을 전개하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춘천 홀리클럽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린다. [글 춘천 홀리클럽 회장 이학규 장로]



■ 10주년 기념 홀리클럽 축제

춘천 홀리클럽 열 돌 맞이 성시축제(聖市祝祭) 초청특별성회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일 시 : 2006년 6월 9일(금)
장 소 : 춘천 안디옥감리교회(석사동 현진 에버빌 아파트 옆)
특별강사: 오 정 현 목사(서울 사랑의교회 담임) 명 성 훈 목사(성시교회 담임)
일 정: 오후 2시 기념예배
오후 3시 성시운동 포럼(주제발표자 명성훈 목사)
오후 6시 만찬
오후 7시 특별성회(강사 오정현 목사), 찬양과 경배: 장미자 사모, 이화숙 집사
문 의 : 회장 이학규 017-370-4831, 사무국장 김영명 011-9792-5775

■ 2006 임원조직

명예회장: 조남진 장로 증경회장 허 천 장로 직전회장 조은제 목사
회 장: 이학규 장로(석사감리교회)
부 회 장: 허종구 장로(중앙성결) 김태권 장로(동부장로) 임운식 장로(순복음춘천) 이영식 장로(중앙감리) 차혜자 권사(춘천침례)
감 사: 장준홍 장로(서부감리) 마철규 장로(제일장로)
사무국장: 김영명 장로(동신장로) 서기 강철주 장로(창대감리) 회계 김기기 장로(석사감리)
분과위원장: 총무 김용배 장로(소양성결) 기도 김종렬 장로(신성감리) 구호 이명신 권사 전도 홍승찬 장로(순복음) 교육 한명수 장로(창대) 가정생활 차옥련 권사(신성) 사회정화 이순훈 장로(제일장로) 환경보호 최문길(우두) 홍보 이영규 장로(석사) 청소년 백형기 안수집사(효신) 재정 임희방 장로(동부) 섭외 김용헌 장로(순복음) 영접 최선실 권사(안디옥) 기록 박무일 장로(석사) 동원 임영일 안수집사(춘천침례) 교통 서종신 장로(광장)

춘 천 홀 리 클 럽

특집좌담: 우리의 선교 대상 군선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지회장으로 섬기시는 박인관 목사(광염교회 담임)와의 인터뷰



조: 목사님, 반갑습니다.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있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기에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국군형제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군선교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선교는 군에 입대한 군인들 곧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선교입니다. 현재 60만 대군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서 개성중심으로 자라난 신세대가 군의 주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구속당하며 상하의 계급구조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역이죠. 한 예를 들자면 매년 세례 받는 장병만 평균 20만 명을 넘습니다. 2만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선교는 해외선교와 같은 국직한 선교에 밀려 거의 무관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군선교 현황입니다.

현재 군선교 강원지회가 돌보아야할 춘천, 화천지역의 군인교회는 대대급 교회를 포함하여 80여개가 되지만 군목은 단지 16명이 배치되고 자원한 민간 목사 즉 종군목사가 18명이 섬기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전국의 종교인 수에 따른 군목을 배치하다 보니 메년 군목 정원이 줄어 2000명이 넘는 연대급 교회도 군목이 없어 이웃의 군목이 돌보는 실정입니다. 연대급 교회에 목사는 없고 승려가 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요즘 군부대 내의 각종 사고는 장병들의 정신무장에 어려움이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군종목사는 군의 정신적 무장을 위해 참으로 큰일을 감당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목회자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대위에 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진실로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입니다.

"군선교는 자유를 구속당하며 상하의 계급구조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장병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역의 선교"

"군선교가 여러 개 중의 한 특수한 좁은 영역의 선교가 아니라 내 아들이요, 형제를 위한 선교..."

조: 그러면 군선교회 강원지회는 언제 조직되었으며, 지금 섬기고 있는 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저희 강원지회는 이제 창립된 지 4년 밖에 안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군선교회 강원지회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을 거에요. 아직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강원지회는 창립시 이사장에 김창수 목사님 지회장에 박상호 목사님을 거쳐 지금 현재 제 2대째로 이사장에 김주환 목사님과 지회장에 제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발로 뛰는 총무 박태원 목사와 회계업무를 맡은 조경대 집사 그리고 장동자 사무간사 1명이 광염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사와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군선교의 중요성을 느끼는반면에 또한 어려운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선교의 형편이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목사님은 군인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상해 본적 있으신지요?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말입니다. 놀랍게도 군인교회에 배정되는 군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군목에 대한 봉급은 주어지지만 그 외 교회건축을 비롯한 비품구입 및 교회를 위한 운영비가 일체 없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후원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선교회를 위해 지원되는 개교회의 현황은 매우 인색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현재 10여개 교회가 평균 10만원도 안되는 선교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매월 드리는 순회헌신예배와 사랑의 온차를 지원하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직접적으로 기본적인 것도 채 지원이 안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그러다 보니 많은 에피소드도 생깁니다. 우리교회 청년이 군대 가서 첫 번째 편지에 "초코파이 먹기 위해 교회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을 읽었을 때 초코파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나 싶었는데, 제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훈련마치고 자대 배치 받았을 때 면회 가서 들어보았습니다. 너도 초코파이가 맛이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정말 맛있던데요!" 더 황당스런 일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장로님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그래서 연결 연결하여 그 기회에 군선교를 지원한다고 그 청년의 부대 군목을 찾아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물었답니다. 그런데 군목이 그 친구를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찾아가 물었더니 절에 갔다는 겁니다. "절에 가면 피자준다고 해서..."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초코파이 줄때 절에서 봉실봉실 준다더니 이제는 아예 피자를 준답니다. 이걸 어찌합니까? 지휘관이 타종교가 되는 경우에는 군종병 마저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 그렇다면 이 현실을 그냥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인데 군선교 강원지회의 전략적 복음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선교에 대한 연합회의 비전이 있다면?

첫째는 전국 군선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비전2020 복음화전략입니다. 세례 받는 군병들을 주소지 인근교회와 연결시켜주어 관심을 가지게 하고 휴가 등 기회를 활용하며 전역 후 초청하여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것이고, 둘째는 강원지회 내 교회들과 대대급 교회들을 자매결연 맺게 하여 우선 물질보다는 관계를 맺고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등 년 중 내내 오가며 지원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 내 청년들에게도 부흥의 길을 열어주고 장년들에게는 선교의 장을 넓히며 군장병들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금년에 실시하는 세례예식에 춘천, 화천의 교회들이 여러 개 그룹으로 나누어 참여하여 군선교의 중요성을 느끼고 참여케 하는 프로그램과 넷째는 겨울 추위에 경계서는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온차를 적극적으로 교회가 참여케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매월 순회 헌신예배를 드려서 개 교회가 군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 목사님, 바쁜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교우들에게 군선교에 대하여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를 들어 말씀해 주시지요.

바라기는 군선교가 여러 개 종의 한 특수한 좁은 영역의 선교가 아니라 내 아들이요, 형제를 위한 선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 교회가 군선교위원회를 조직하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나 청년들은 있으며 군 입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게 될 텐데 이들을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시켜 군대에 선교사로 파송시키고 정기적으로 교회의 소식을 보내며 교회학교와 장년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의 편지와 선물을 보내는 일과 군입대중 한번씩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전2020 프로젝트에 따라 내 교회에 배정된 세례 받은 장병을 소개하여 주면 그들을 직·간접으로 관리하고 종내에는 교회에로 안내 등록케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주변지역의 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군선교를 프로그램화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군선교를 위한 헌신예배와 휴가 및 전역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간증예배도 가능하며 진 교인들에게 군선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정기적인 군선교 헌금을 드려 모아서 지회에 보내주시면 보다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는 군부대 교회 건축이라든지 년1회 장병세례예식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개교회에 군선교회를 조직할 때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지회에서는 개교회에 군선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자매결연 부대를 소개해 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평신도들은 나의 자녀가 군대에 입대했다고 생각하고 한 교우가 한구좌인 천원씩만이라도 군선교를 위해 지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개 교회는 비전2020을 위해 월 50,000원 정도의 후원금을 매월 보내주시면 세례자의 명단을 보내게 되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선교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허락하신 춘천성시신문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면을 대하는 분들이 군선교를 위해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군선교 역시 영적전투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군선교 계좌번호 : 우체국 202051 - 01 - 002531 군선교강원지회
군선교 강원지회 연락처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28-8 춘천광염교회
지회장 박인관목사 033-263-5007, 총무 박태원목사 019-420-9549
취재 2006년 5월 17일 | 진행 조영춘 | 글정리 정재호 / 사진 김미경

춘천성시화운동의 영역선교화와 국제 네트워크화
-루이스 부쉬의 춘천 방문과 관련하여

1. 배경

세계선교의 영적 지도자 루이스 부쉬가 세계변혁선교운동을 설명하고 2007년 춘천성시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의논하기 위해서 2006년 5월 26일(금)~31일(수)까지 춘천을 방문했다.

루이스 부쉬와의 연결은 제3국인 인도의 비하르에서 2006년 1월에 총체적변혁선교를 위한 비하르 국제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지게 됐다. 루이스 부쉬는 서기2000년 세계복음화운동(Beyond Movement)을 섬기신 분이다. 세계선교미국센터의 대표 랄프 윈터 박사는 이 운동을 원컵에 "가장 거대하고 침투력이 강한 전세계적 복음화 네트워크"라고 표현했다. 풀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박사는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갈래 운동들을 하나로 결집한 증앙 촉매적 운동"이라고 언급했고, 세계기도정보를 쓴 패트릭 죤스톤은 "세계복음화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이 운동이 제공한다"고 쓴 바 있다.







루이스 부쉬 목사는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2로잔대회에서 가장 미복음화된 지역인 10/40창 지역 개념을 소개하고, 10/40창 개념을 통해 전 세계적 기도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GCOWE'95: 189개국에서 4000명의 지도자가 참석)에서 제기된 미전도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여호수아 2000 프로젝트" 추진한 바 있다. 서기 2000년 세계복음화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다가온 21세기를 새로운 부르심으로 섬기기 위하여 루이스 부쉬는 2004년 세계변혁선교운동(Transformation World movement)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세계변혁선교운동의 개요

루이스 부쉬가 2004년 로잔대회와 연관하여 전세계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사회변혁을 일으키시는 것이 이 시대의 부르심이라고 응답한 답변이 특징적인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전인과 전사회를 구원하는 총체적 복음이 인구 25%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표현되기 위하여, 그리고 양대 신앙운동인 선교한국, 성서한국을 통해 총체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춘천은 1972년부터 춘천성시화운동을 일으키면서 전인과 전사회의 입체적 도시구원의 비전, 즉 "십령마다 그리스도화 되기 위하여"(그리스도의 사람, "춘천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 되기 위하여"(그리스도의 도시) 연합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복음의 총체성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향후 인구 25%의 복음화율이 2020년까지 50%로 올라가고, 이에 따라 도시의 구조와 생활이 복음화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원인에 맞는가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우리의 노력을 본래적인 복음의 총체성을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루이스 부쉬의 세계변혁선교운동은 복음이 전인과 전사회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고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변혁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운동은 이러한 복음의 총체성 위에 섬기는 리더십,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협력을 통한 네트워킹, 그리고 사회의 전 영역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과제 달성을 위한 초점 영역그룹의 형성 등을중요한 방법론으로 생각하고 있다.

3. 세계변혁선교운동의 협력구도

이 운동의 협력구조는 리더십을 지역적(Local), 국가적(National), 국제적(Global)으로 연결하는 삼중협력 구도를 지니고 있다. 즉, 춘천을 중심으로 춘천의 지도자들이 영역별로 결합하면서, 각 영역들을 도울 국가적 국제적 지도자들이 연결되는 구도이다. 그래서 춘천국제회의는 도시 전체를 하부 단위로 나누어 초점 영역을 분류한 후 그 영역마다 삼중의 지도자 그룹이 함께 팀을 이루어 협력하게 될 것이다. 루이스 부쉬의 국제협력망은 매우 광범위하여 춘천이 이러한 네트워크로부터 큰 혜택을 입게 될 것은분명한 사실이다.

4. 패러다임의 전환

인구 25%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벽을 넘어 50%로 나가야 하는 복음화의 도전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양식, 생활의 질의 변화와 참여를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대안적 도전이 살아있을 때에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50%의 복음화는 영역선교라는 새로운 강조점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개인영역과 생활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부르심이다.

이번 루이스 부쉬의 춘천 방문을 계기로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구상할 수 있는 향후 춘천성시화운동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1) 운동을 영역선교적 차원에서 재정렬 한다.
2)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다양한 영역을 섬기고, 연결하며,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네트워크의 서버(섬김이) 역할을 한다.
3) 영역선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운동의 사활이 걸려있음을 믿고, 영역별 초점그룹 등록제의 원칙을 제도화시킨다.
4) 각 영역별 초점그룹들을 철저하게 분권화시켜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5) 성시화 주간에는 다양한 영역선교 초점그룹들의 박람회를 열고, 개인과 도시의 입체적 구원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각인시킨다.
6) 서버로서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지식경영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7) 성시춘천기금을 조성한다.
8) 모든 영역별 초점그룹마다 연구위원이 있도록 한다.
9) 영역선교를 위한 기도운동을 활성화시킨다.
10) 국가적, 국제적 협력의 네트워크를 실속 있고 광범위하게 구축한다.

5. 영역별 분류

현재 춘천에서 활동 중인 초점그룹들을 영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잠재력 있는 영역 포함)

1. 가정	8. 대학생	15. 시민운동	22. 정보기술
2. 기독교 고등교육연구	9. 도시계획/환경	16. 언론	23. 중보기도
3. 기업경영	10. 문화/카페	17. 연구소, 문화원	24. 청소년
4. 남북통일	11. 사회복지	18. 영어학습/학습법	25. 체육
5. 네트워크	12. 선교단체	19. 예수마을	26. 춘천학
6. 농업	13. 성시아카데미	20. 예술	27. 해외선교
7. 대안교육	14. 세계관 학습	21. 의료	28. 흘리 클럽

이러한 영역별 초점그룹들은 꼭 기관의 모습을 지닌 주체들뿐만 아니라 복음적 입장 위에서 5명이상 정기적으로 모인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작은 모임이라도 성시화운동의 영역별 초점그룹으로 등록시켜 보다 큰 성시화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초점그룹이야말로 성시화운동의 핵인데, 다양한 초점그룹들이 1년 안에 50개 정도 일어나는 것을일차 목표로 기도하는 것도 좋겠다.

루이스 부쉬 내외의 춘천 방문을 계기로 2007 춘천성시화국제대회가 현실적인 사안으로 제기되었다. 이 대회를 통해 춘천성시화운동이 보다 규모 있는 영역선교로 발전하고, 동시에 국가적, 국제적 네트워크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 이영길 선교사]

교경협의회

★연합부흥집회
일 시: 6월 11일(주일 저녁)~14(수)
오후 7시 30분
장 소: 순복음춘천교회
강 사: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세미나
일 시: 6월 14(수)
오전11 1시~12시
장 소: 순복음춘천교회
문 의: 252-1717

erom 이롬청신동충하초
이롬청신 동충하초는 100%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를 사용, 박하 계피 대추 감초 비타민 및 라이코펜이 함유된 토마토추출물 등을 함유하여 더욱 진하고 풍부합니다.
목소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복용대상 • 목을 많이 쓰시는 목사님, 찬양사역자, 선생님, 강사 등
• 기관지가 약하신 분
•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
• 찾은 가래,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
대표 서지현 권사(시온성결교회)
033)261-2002 / 019-350-5115 팩스 261-2333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교회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동신교회(이병서 목사)편입니다.



춘천 동면 만천리에 소재한 동신교회는 매우 복음적인 개척과 이전 사례로 잘 알려진 교회이다. 1986년 10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개척된 동신교회는 작년 12월, 교회 이전 및 입당예배를 시작으로 2006년 500명의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있는 교회이다. 그 개척과 성장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자.

이병서 목사

이병서 목사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다. 퇴계 이황 선생의 직계 후손으로 태어난 이 목사는 유서 깊은 퇴계 선생의 가풍과 유학자의 면모를 이어받았다. 그가 유교적 분위기 가운데 복음을 접한 것은 외조모 덕분. 당시 서울 오류동장로교회에 출석하셨던 외조모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목사를 처음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였다고 한다. 후에 이 목사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진학했을 때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 분도 외조모였다.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 또한 외조모 로이스의 좋은 신앙유산을 물려받지 않았던가.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1:5)

이병서 목사의 첫 목회지는 충북 증원군의 돈산교회였다. 인근 지대가 낮은 탓인지 비만 오면 교회에 물이 차고, 여름 장마 때에는 목사관 부엌의 솥이 떠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불과 10여 가정이 모이던 시골교회. 그러나 그 시절을 회고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머물렀던 시기였다.

동신교회 개척이야기

그 후 충북 단양의 삼화교회를 거쳐 1986년,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던 그 무렵에 춘천 동신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사실 이 목사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보다 큰 목회(?)를 꿈꾸었다고 한다. 서울과 안산지역을 오가며 여러 차례 교회 설립을 모색했다. 그러나 성령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 당시 춘천에는 등서인 이광우 목사(동산장로교회 담임)가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광우 목사의 권면이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 환상처럼 다가왔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님께서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듯이 이 목사 또한 수도권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은 그를 척박한 땅 강원도 춘천으로 인도하셨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믿고 동신교회가 시작된 곳은 효자동. 주님의 뜻에 따랐지만 개척 초기부터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교회가 나름대로 정착되어갈 무렵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게 된다. 그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임대교회에 대한 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다는 이 목사. 성령님께서는 이 목사에게 일찍이 성전건축에 대한 꿈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처럼 쉽지 않았다. 교우들의 헌신으로 우두등에 232평 대지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진입로가 마땅치 않은 문제, 주변의 더딘 개발속도 등 교회 이전의 가능성은 요원했다. 그 후 석사동 로데오거리 인근 500평을 매입했지만 그 또한 교회의 새 부지로는 마땅치가 않았다. 교회이전과 관련하여 보낸 긴 시간들. 이 목사에게 있어서 그 기간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연속이었다. 이 목사와 교우들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 의지하는 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곳임을 배우게 된다. 많은 기도가 쌓여진 후에 교회이전은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된다. 바로 석사동의 500여 평과 현 만천리 부지 4000여 평과의 맞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부터 현 만천리 성전의 1200평 공사 전 과정을 말하라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 목사. 이 목사의 간증을 잠시 들어도 그 드라마틱한 성령님의 역사의 숨결이 전해지는 듯하다.



이 목사의 모토는 "오직 주님"이다. 이 목사가 그동안의 목회 경험을 통해 철저하게 체득한 진리이기도 하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교회인줄 알고 내 힘으로 할 때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설교도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우들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성전건축도 주님이 가지신 꿈이시기에 주님이 스스로 이루셨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이 목사. 이런 이 목사에게서 오래된 포도주의 진한 맛이 우러나옴은 결코 과찬이 아니다.

동신교회의 꿈

동신교회의 꿈은 총체적이다. 이 목사와 교우들은 유아교육, 청소년 교육, 장애인 선교, 노년층을 위한 실버교회의 꿈도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춘천 성시화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 교회 이전과 함께 어린이집(원장:조향숙 집사)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각각 다양한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라는 2006년도 기도제목을 가지고, 500여 성도를 주시도록 꿈꾸는 동신교회. 김금용, 조종태, 장대현, 김영명 장로, 신동주 전도사를 비롯하여 여러 든든한 교회 일군들이 하나님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이 귀한 무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소개합니다

TCF(한국기독교사회)

TCF(한국기독교사회)는

1980년 나덕영 호주선교사의 제안과 한국 기독학생회(IVF)학사 운동의 도움으로 초교파적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교단에 서는 것은 아프리카 오지에 헤외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기본 신념을 가지고, 교직의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교육에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모임이다.



▲ tcf 겨울수련회

현재 2년에 한 번씩 전국기독교사대회를 개최(2006. 8. 14~19, 호서대)하는 기독교사연합단체인 좋은 교사(www.goodteacher.org)와 협력하여 가정 방문, 일대일결연 등의 캠페인에도 동참하고 있고 MK(mission kids)사역 및 캠프 사역, 방학마다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를 비롯하여 28개의 지역에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춘천 tcf는

1996년 4월 최기용(화천교육청 장학사, 강영희(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팀장), 박영규(강원 tcf 지역 간사, 양구중) 세 분 선생님의 모임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 춘천 IVF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주로 영성훈련과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영성훈련으로는 개인성경공부(PBS)와 교육활동으로는 독서토론을 비롯하여 예비 교사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그동안 8편의 성경을 공부하였으며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IVP)"를 비롯해 10여권의 책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느헤미야 pbs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리더십과 케이건의 협등학습에 대해 공부하면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에 함께 논의하고 있다.

춘천 tcf는 2002년에 월1회 좋은교사모임을 개최하여 전도집회를 비롯해 강연회 및 중보기도회를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열었고, 2003년에는 제2회 강원기독교사대회를 주관하여 강원도 전역의 70여분의 교사들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직업이 교사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역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 모임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점을 잘 활용하여 여러 지역에 tcf가 생겨나게 되었고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통해 가평, 남양주 모임을 비롯하여 강원도의 4개의 모임이 생겨났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이 쉬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아마도 모임을 통해 힘을 얻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말씀의 힘, 기도의 힘, 교제의 힘이 원동력이라 생각된다. 춘천 tcf의 공통 기도제목은 교실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지속적인 예비교사 사역, 미혼선생님들의 결혼 문제 등이다. 앞으로 더 많은 기독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위해 연구활동을 펼치고 좋은 교사로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해본다.

[글 안상욱(금산초등) 문의: 017-391-5828/ 홈페이지(www.tcf.or.kr)의 춘천게시판]

영혼의 양식

복음전파의 장애를 극복하려면 - 행4:1~22



신재원 목사(새춘천교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그 때 어떻게 그 반대를 극복했습니까?

첫째, 내적능력으로 극복하였습니다.

행4: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어떤 핍박과 반대도 극복할 내적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기 속에 세균이 많아도 건강한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외부의 어떤 반대와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임했을 때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충만 받아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 때 어떤 반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앙의 열매로 극복하였습니다.

행4:14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하는 자들은 말로 합니다. 신앙인은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자체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어 40년을 살아온 성전출입문의 거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그들 곁에서 모든 비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무기는 내적능력이 되시는 성령님과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면 모든 반대자들도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칭송받는 삶을 통해 극복하였습니다.

행4:21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당시 병든 사람들과 에루살렘의 과부들을 교회가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의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건물도 따뜻하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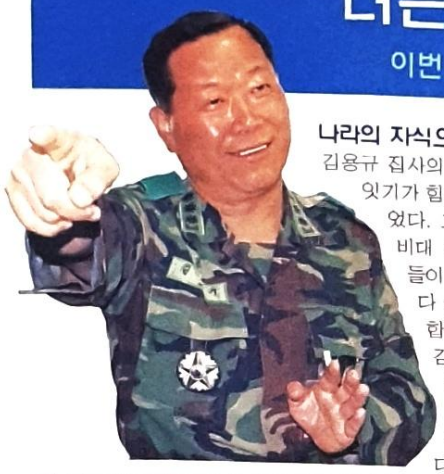
내적능력과 열매 맺는 삶과 칭송받는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전도의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여건 속에서도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합광고기획
DTP 디티피아
- 인 쇄 : 명함, 스티커, 전단, 포스터, 카다로그, 각종봉투, 서식, 양력
- 판 촉 : 행사용 단체복, 유니폼, 단체T, 각종판촉물, 행사기념품(타올/우산등)
- 합수막 : 각종현수막, 실사현수막
"주님만이 나의 길이오 진리오 빛이 십니다"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033.263.5152
Fax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JESSI NEW YORK Lemonade 레몬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제시뉴욕·레모네이드
제·선·리·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운영팀
대표 전 순 천
☎ 252-7262
위치 조양방 조흥은행본점 앞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나라의 자식이다"

이번 시간은 육군 쌍용공병부대 김용규 여단장(성문교회 집사)편입니다.



나라의 자식으로 명받아

김용규 집사의 어린 시절은 무척 불우했다. 끼니를 잇기가 힘들기도 했지만 아버지로 인해 더 힘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창설멤버였는데 6.25에 참전해 전우들이 수없이 전사하자 그것이 괴로워 날마다 술을 들었고 그럴 때마다 자녀들을 기합주곤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마친 김집사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서울에 있는 친척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살게 되었다. 이때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단다. 자신의 설움을 공부하는 것으로 달랜 김집사는 중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게 되었고, 마땅히 전국적으로 소문난 인문계 고교에 진학할 실력이었으나 어려운 자기 처지를 생각해서 공고에 진학하게 된다.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차지했고 졸업 후에는 2년간 공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욕심이 수그러들지 않아 직장생활 내내 단과학원을 다니면서 대입 준비를 했고, 그 해 예비고사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얻었다. S공대에 넉넉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고에서 제2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때 잠시지만 인생의 절망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히 그해 7월 육군 중령 출신인 공장장의 소개를 받고 육사에 진학하기로 결심을 한다. 하루 두 시간을 자며 직장생활과 시험공부를 한 결과 3개월만(10월)에 육사에 합격하게 되었다. 그가 군인이 된 것은 순전히 공부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셨다. 군인이셨던 아버님은 김집사가 군인이 된 것에 만족해하셨고, 마지막 유언으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나라의 자식이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이 말씀 때문에 그는 효즉충(孝卽忠)이라는 글귀를 가훈으로 삼고 있다. 그는 군 생활 내내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기곤 한다. 그 유언을 기억하는 것이 믈질적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쌍용공병부대

하나님의 자식으로 부름 받아

김집사는 어려서 친구들이 성탄절에 선물 받는 것을 보면 부러워 교회에 다니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삶이 고달파 교회에 다닐 여유가 없었다. 그가 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육사생도 시절. 김집사는 부하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자에 대한 신앙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가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은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다니던 임산성결교회에서 담임목사님과 성경공부를 하면서부터이다. 그는 성경공부를 하면서 지신이 믿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욱 가깝게 만나게 된 것은 80년도에 있었던 큰 사고 때문이다. 중위였던 그는 가랑이 사이에서 폭약을 검사하다가 그만 폭약이 터지는 바람에 온몸에 파편이 박히고 고막이 터졌다.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곧이어 맡게 된 심청교육대에서 전과자들 교육시키는 업무를 두려움 없이 수행하게 되었다. 전과자들 막사에는 다들 들어가기를 꺼리는데 그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일을 매일 반복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온몸이 떨리게 만드는 말을 서슴지 않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성경구절을 읽고 기도하게 되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는 기도의 용사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 그가 기도하면 주님은 즉시 응답하신다. 일례로 그는 부대 내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기를 주실 것을 기도하면 이김없이 주님께서 맑은 날씨를 주신다. 기상대에서 비가 온다고 한 날도, 다른 곳은 다 비가 오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김집사를 긍휼히 여기시어 부대행사를 맑은 날씨 가운데 치르게 하셨다.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그는 일명 일기예보, 기도하는 지휘관으로 소문나있다.

그는 또한 양육의 용사다. 김집사는 주일학교 부장으로 16년째 봉사하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큰 힘이 될 것을 확신하며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부모까지 전도되는 일이 허다하다.

김집사가 이렇게 믿음의 용사가 된 뒤에는 그의 아내인 유명옥 집사가 있다. 생도시절 고향교회의 성가대에서 만나 결혼하게 된 그녀는 김집사의 멘토이다. 본래 십일조나 성수주일 개념이 없던 그에게 유집사는 아낌없는 권고를 하며 철저한 신앙인으로 변하게 이끌었다. 이런 부부의 신앙을 본받아 아들 삼형제도 모두 신앙생활에 열심이다. 셋째 아들 하은이는 이들 부부에게 특별한 간증꺼리이다. 하은이를 낳을 때 의료사고로 아내와 하은이 모두를 잃을 긴박한 위기상황에 처했었는데 눈물로 간구하며 드린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결과 아내나 하은이나 모두 건강하다.

지휘관으로서 보냄 받아

김집사는 지휘관으로서 확실한 소명감을 갖고 있다.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여단장으로 보내신 뜻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늘 그 소명감으로 부하들을 대한다.

그는 매번 '만남'이란 제목으로 여단 신병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킨다. 그의 신병교육은 군 생활을 힘 있게 하기로 소문나있다. 우선 군 생활을 하는 의미에 대해 교육한다. 그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 대신(반대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라는 의미이기 때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군생활로 바꾸라"고 권한다. 그의 지휘모토는 강압에 의한 100%보다 자율에 의한 40%를! 이다. 그는 부하들이 강압적인 군 생활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는 군 생활을 하길 바란다. 험한 산타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즐기는 산악인들처럼 목적의식을 갖고 군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그가 권하는 군 생활 목표는 내외적 건강 즉 몸만들기와 인내심, 의지력 기르기, 부모님과의 관계개선, 사회생활 기초세우기 등이다.

그런 다음 그는 '만남'에 대해서 교육한다. 그는 전우들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들의 만남 중에 2년간을 매일 매시간 함께 있는 만남이 몇 개나 있을까? 아마 열손가락을 꼽을 것이다. 그러니 전우와의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전우에게 만나나마나한 존재, 만나서는 안 될 존재가 되지 말라고 그는 신병들에게 충고한다. 김집사는 상대방이 나를 만난 것이 복이 되도록 나를 바꾸라고 권면한다. 군 생활에서 전우의 짐이 되는 사람은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예인변심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 가정문제로 비관하는 사람이다. 김집사는 신병들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군 생활을 하라고 말하며, 행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지 말고 나로부터 찾으라고 권한다. 그는 부하들을 주님이 맡기신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일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병사들도 꽤 있다. 김집사는 아무리 바빠도 만남 교육을 멈추지 않을 작정이다. 이 교육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계 호텔 예약 ● 전세 버스 알선
● 여권 및 비자 업무 ● 신혼여행
● 국내 · 외 여행 알선 (수학 · 졸업 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 (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책이면서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룩의 책이다.

거룩(Holiness)은 창조주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거룩하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도 거룩하다. 성경이 무엇을 거룩하다 하였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성구는 맨 처음 언급된 한 구절씩만 소개한다).

거룩한 땅(출3:5), 거룩한 집회(출12:16), 거룩한 처소(출15:13), 거룩한 날(출35:2), 거룩한 민족(출19:6), 거룩한 사람들(출22:31), 거룩한 의복들(출28:2), 거룩한 선물(출28:38), 거룩한 물건(출28:38), 거룩한 관(출29:6), 거룩한 희생단(출29:37), 거룩한 기름(출30:25), 거룩한 이름(레22:32), 거룩한 백성(신7:6), 거룩한 빵(삼상21:4), 거룩한 집(대상29:3), 거룩한 씨(에스라9:2), 거룩한 하늘(시20:6), 거룩한 왕좌(시47:8), 거룩한 영(시51:11), 거룩한 아이(행4:27), 거룩한 숨(마1:18), 거룩한 산(시2:6), 거룩한 예루살렘(계21:10), 거룩한 팔(시98:1), 거룩한 약속(시105:42), 거룩한 양떼(겔36:38), 거룩한 천사들(마25:31), 거룩한 선지자들(눅1:70), 거룩한 사도들(엡3:5), 거룩한 형제들(살전5:27), 거룩한 손(딤전2:8), 거룩한 부르심(딤후1:9), 거룩한 제사장들(벧전2:5), 거룩한 여자들(벧전3:5), 거룩한 명령(벧후2:21), 거룩한 언행(벧후3:11), 거룩한 믿음(유1:20), 거룩한 입맞춤(롬16:16), 거룩한 일(고전9:13), 거룩한 성(느11:1).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수24:19), 거룩하신 이(삼상2:2)와 관계된 것들이며, 모두 다 거룩한 성경기록들이(롬1:2; 딤후3:15) "거룩하다" 한 것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항목 중 처음 열두 항목은 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 '거룩'이 애굽이라는 현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분리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자칫 혼동하며 미혹되기 쉬운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거룩하다 한 것들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함부로 거룩하다고 하여 '성'(聖)자를 갖다 붙인 것들을 지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종교적인 것을 거룩하다 하여 성자를 붙이지만, 종교적인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다. 성경이 거룩하다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적 의식과 절기들과 물건들을 거룩하다 하여 '성'(聖)자를 붙인 것은 모두 거짓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모든 종류의 행실에서 그렇게 거룩하십시오.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셨습니다. 외모를 존중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거류하는 시간을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야 합니다."(벧전1:15-17 사역)

우리 주 예수의 성육신과 함께 하나님의 숨이 인격화한 성령께서 오셨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호흡 속에서 그분께서 함께 숨쉬고 계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숨이 함께 숨쉬는 사람들이 곧 거룩한 사람들이다. 거룩케 하신 분과 거룩케 된 자들이 다 한 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히2:11).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케 해야만 한다(고후7:1). 무엇보다도 교회는 뜸씨가 없는 자들이므로,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 오래된 뜸씨를 제거해야 한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이다(고전5:7).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책인 성경을 유대인에게 맡기셨다가(롬3:1-4), 교회에게 맡기셨다(딤전3:15-16).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성경 말씀으로 거룩케 된 사람들로서, 성경을 지키는 가장 거룩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이다.

성경(the Holy Bible)은 거룩한 책(the Holy Book)이란 뜻이다. 원래 바이블(Bible)이란 명칭은 책(book)이란 뜻의 그리스어 '비블리아'에서 비롯된 말인데, 정식 명칭은 '타 비블리아'(비블로스<책>의 복수형) 곧, 그 책들(the books)이란 뜻이다. 다니엘서 10장 21절의 진리의 성경기록(the scripture of truth)은 하나의 책(the Book)을 가리키지만, 마태복음 21장 42절의 성경(the scriptures)은 책들(the books)을 가리킨다. 여기서 'scripture'는 'scribe'(기록하다)의 명사형으로서 '기록' 혹은 '기록된 책'을 뜻한다. 로마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거룩한 성경기록들(the holy scriptures)은 '그 책들'(the Books)이 거룩하며, 하나의 성경전서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성경(the holy scriptures)이다. 성경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책이면서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룩의 책이다. 늘 가까이에 있고, 우리 입술과 마음에 있는 가장 친숙한 책이면서도, 그 자체로서 거룩의 책일 뿐 아니라, 그 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신비의 책이 바로 성경(聖經, Holy Bible)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는 성경을 알아가자! [편집부 이영규]

예 향

문화적 편견

넓게 사고하지 않으면 편견이라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지내기 십상입니다. 색깔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위 있고 무게 있는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사장 회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검은색 세단이나, 검은색 차량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는 검은 차량은 주로 장례 차량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엣세대에서는 무게 있는 모임에는 옴긋볼긋하게 옷을 입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이 문화적 편견에 헤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수한 미신과 금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세대와 문화를 뚫고 들어가 새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적 편견 속에 빠져듭니다. 그리스도인은 문화적 편견을 초월해야합니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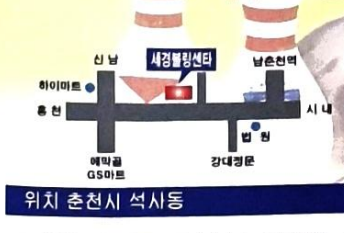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 여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임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현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엔투어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국민일보춘천지사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홍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판 호	이 학 규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위치 춘천시 석사동

대표 이 용 운 집사
(온누리장로교회
·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웰빙 삼계탕 장 삼 원

귀한 분을 모신다면 장삼원으로 오십시오!
건강을 생각한 혼(魂)이 담긴 삼계탕,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 메 뉴
장뇌삼 삼계탕 · 한방 삼계탕 · 닭도리탕 · 한방백숙

* 대형주차시설 완비
*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 연회석 완비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방향 500m지점

예약문의 (033)254-9191 · 9199

포 · 토 · 에 · 세 · 이

갠지스 강, 막배



빈돌리 마을로 가는 막배에 앉아
북쪽으로 흐르는 강물을 살핀다
세월보다 더 남루한 사공의 행색은
무채색 물빛에 묻혀
허적이는 바람결만 맴돌고.

이마에 칠한 선명한 핏자욱

자욱한 강 안개 건너
혹여 피안의 세계라는.

나는 안개 늪으로 삐진다

누군가 이 강을 건너며
아버지의 삶을 노래 할 수 있었던가

이토록 거대한 물줄기에
빈돌리 부족들의 흰 눈동자에 뿌려진
피의 역사.

가난과 궁핍
눈물 서러움을 흘려보내며
깊은 눈동자에 젖어드는 짙은 어두움.

삐걱이며 흘러가는 세월의 여정 속으로
막배는 저어지고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긴 강을 건너고 있다.

시 : 김홍 주(효자교회 권사, 성수고 교사)

행사안내

춘천 YMCA

♣ 제14회 춘천 청소년 기요제
1. 일시: 2006년 6월 3일(토) 오후 3시
2. 장소: 춘천시민회관
3. 대상: 춘천시내 청소년 및 가족, 교사 등 춘천시민 1,000명
4. 후원: 강원도춘천교육청, 범죄예방위원춘천지역협의회
5. 문의: 033) 255-1008. 9

월드비전

♣ 제4회 원주지역찬양축제
1. 일시: 2006년 6월 10일(토) 오후 5시
2. 장소: 원주 학성감리교회
3. 주제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4. 주최: 월드비전 원주지회
5. 후원: 원주기독교연합회
6. 주관: 월드비전 강원지부

♣ 제13회 어린이 연합찬양축제
1. 일시: 2006년 6월 24일(토) 오후 4시
2.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3. 참석예상인원 : 약300여명
4. 문의: (033)254-7244

♣ 월드비전 바자회



춘천중앙사회복지관은 5월 29일(월)~30일(화)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재가어르신을 돕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게 된다.

핫! 이 슈

새빨간 거짓말『다빈치코드』에 대한 백서



라은성 교수('다빈치코드의 족보' 저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미국인 댄브라운이 쓴『다빈치코드』가 2003년 출판되면서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고 있다. 한국에서 이 소설의 인기는 138주 등안 베스트셀러였다는 사실에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에 이어 영화가 제작 · 상영되면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문학작품이라 하더라도 소설로 둔갑된 신성 모독적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유는 없다고 믿는다. 잊지 말아야하는 것은 소설 또는 허구(fiction)가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사실(fact)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먼저, 근본적인 대안으로 문학작품들을 통해 우리들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펩시콜라회사가 10대들을 겨냥해 선전해서 지금은 코카콜라점유율을 육박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코카콜라보다 펩시콜라회사제품들이 훨씬 강하게 호감을 받고 있다. 시, 영화, 연극, 소설, 그리고 음악 등을 비롯한 문학작품들을 통해 청소년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곤 한다.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면역성을 가지게 하려면 각 교회에서 교회역사를, 즉 교회사를 가르쳐야만 한다. 세상의 풍랑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상문학의 배경이 대체적으로 사회, 즉 역사를 배경하기 때문에 교회사 2,000년 역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기독교의 뿌리와 자산을 깨달아 알게 하여 여러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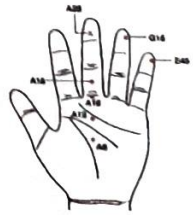
둘째, 이번 사건, 즉『다빈치코드』에 대한 정보와 왜곡된 오류들을 교회성도들에게 홍보해야만 한다. 이 소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초신자들과 불신자들이다. 이들은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혼동할 수도 있다. 그러하여 그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교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대화의 창구가 단절되리라 여겨진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심분야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독교적 역사관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어떤 것이라도 꿰뚫어볼 수 있는 신자들이 되도록 교회가 노력해야만 한다.

셋째, 초대교회에서도 이단들이 일어나자 정통신앙을 확립했다. 신성모독적이고 비성경적인 요소를 지닌 작품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정통이며 이단인지를 분명히 알 수있도록 교리공부가 뒤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딱딱한 교리공부에만 전념하라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교리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경공부, 교리공부, 그리고 교회사 공부가 함께 어울려져야만 하겠다.

건강상식

수지침 구내염 치료하기

표시된 지점을 1일 한번씩 볼펜으로 꼭꼭 눌러준다. A26, A8, A12, A16, A18 부위를 눌러 제일 아픈 곳에 사인봉을 붙인다. E45, G15에서 피를 조금 빼준다.



사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 한사랑(1 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1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사랑의 아가피아 agapia 강원지부

평범한 아이를 인재로 양성하는 아가피아 인재개발학교

미국선 생후 6개월부터 독서습관 잡아주죠

2006년 5월 2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의 제목입니다. "미국 상류층의 자녀교육은 거의 '독서'에 집중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서를 통해 지성(知性)은 물론, 표현력 · 리더십 · 사회성 · 인성까지 키운다는 것이죠."

재미 교육학자 김성혜(62-이화여대 영문과 졸,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학위 취득, 지난 2월 미국의 도서관과 유치원 초등 중학교를 취재해 그 독서교육 시스템을 분석한 책 '독서, 사람을 키우는 힘'(위즈덤북)을 펴냈으며, '서울대보다 하버드를 겨냥하라' 등 다양한 교육서 출판)씨는 "요즘 한국에서 독서 · 토론 열풍이 분다지만 아직 앙과 질 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독서교육은 생후 6개월부터, 공교육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도서관에는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 유아를 위해 6개월~1년 단위로 '아기용 독서 프로그램'과 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회원이 된 아기에게 생애 첫 책을 선물하고, 엄마들을 모아 자녀 독서지도 교육법을 가르칩니다. 미국 도서관 시스템은 자연스레 학교로 연결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도서실 환경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3학년까지는 책을 읽는 듯 노는 듯 편안한 분위기로, 4학년부터는 스스로 책을 찾아 읽으며 그룹토론 리포트 작성을 병행하는 등 독서의 수준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독서교육을 제대로 소화하는 부류는 따로 있더라"는 게 김씨의 말입니다.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고 학교 프로그램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의 백인, 유태계가 대부분이더군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계층에 따라 독서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제미 한국인은 어떨까요? 김씨는 시카고의 한 한인 도서관장의 말을 인용해 "교육 이민을 온 한국 부모들이 영어에만 매달릴 뿐 도서관에 오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김성혜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에일대를 졸업하고 각각 의사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의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며느리를 비롯한 미국내 젊은 지식층들의 유아 교육법 제1원칙이 뭔지 아세요? 그것 TV나 비디오를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에 맛들이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래요. 대신 집에서 혼들의자에 앉아 동화책을 읽히고, 공공 도서관에 보내 몇 권씩 책을 빌려오더군요. 그런 걸 보면 '책은 나중에 읽고 시험공부 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저로선 일종의 문화충격이에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실제 자신을 둘러싼 일상과 연관시키고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의 인간관계를 되짚어보는 '연결시키기(making connection)'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글쓰기와 말하기 실력도 늘고, 사회성 좋은 아이로 자랍니다. 엄마들이 계모임 하며 학원 정보만 수집하지 말고, 독서회를 만들어 스스로 공부해야 아이가 보고 배웁니다. 여기저기 학원 보내다 보면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쯤 '이할 빠진 호랑이'가 될 거예요. 대신 책을 제대로 읽히세요. 유아 때까지 독서습관만 잡아주면 그 후엔 스스로 공부해 나갑니다."

아가피아 독서인재개발프로그램과 시스템은 한국의 자녀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011-372-9100, 241-9939 아가피아 인재개발원 김성호 목사

♡세미나

세계적인 평화신학자인 톰 이더 누펠드(Tom Yoder Neufeld)박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5월 8일(월) 오후2시 주한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약 5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누펠드 박사의 에베소서교회론 강연이 진행되었다.

♡혜민사랑의 집 3주년 기념예배



순복음춘천교회(담임: 김주환목사) 부설 혜민사랑의 집(대표:조남진장로)은 3주년을 맞아 5월 3일(수)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을 펼쳤다. 이날 지하식당에서는 지역 어르신들 500여명을 초청해 집심식사를 대접하고 경로잔치를 벌였다.

♡소망의 마을 기공식



한국사랑의집 짓기운동 춘천지회(이사장:김창수)는 5월 9일(화) 오후 2시 신북읍 천전리 소망의 마을에서 '사랑의 집'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박인관 이사의 사회로 기공예배와 기공식을 갖고, 올해 입주자로 선정된 4가구 주민들에게 사랑의 망치를 전달하고 시삽식을 가졌다. 춘천지회는 10월까지 가구별 20평 규모로 다세대 주택 1동 4세대가 살 수 있는 공동 주택을 신축하게 된다.

♡노인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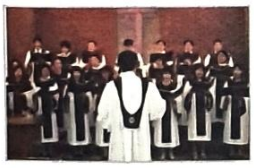


춘천제일감리교회(담임:원종국목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11일(목) 지역 어르신들을 500분을 초청해 노인잔치를 열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노인잔치에서는 웰빙요가 성악공연 등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춘천YMCA 청소년 문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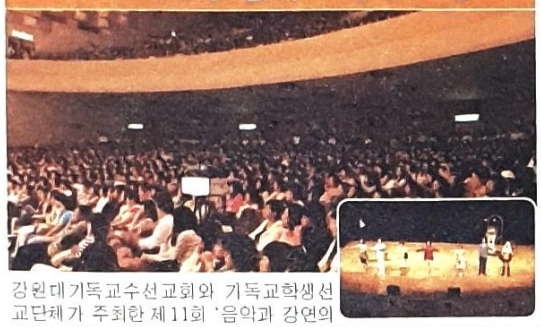
한국폴리텍대학III과 춘천YMCA가 함께 한 2006년 청소년 문화마당이 5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청소년과 시민 약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한국폴리텍III대학 학생들의 경연대회와 올림픽 댄스 스포츠 아카데미의 댄스스포츠, 청소년 댄스연합동아리 메카공연 등 춘천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 축제를 벌였다.

♡작은 음악회



강촌교회(담임:김성호목사)는 5월 28일(주일) 오후5시 작은 음악회와 홈커밍데이를 열고 루이스 부쉬의 초청강연과 함께 성도 간의 화합과 아름다운 만남의 장을 펼쳤다.

♡ 2006년 음악과 강연의 밤



강원대기독교수선교회와 기독교학생선교단체가 주최한 제11회 '음악과 강연의 밤'이 5월 11일(목) 오후 7시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펼쳐졌다. 2천여석의 객석이 부족하여 통로까지 가득 메운 가운데 강원대 음악학과 재학생 현악4중주를 시작으로 The Play의 뮤지컬 '자판기' 공연, 김형국목사(서울 나들목사랑의교회)의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뮤지컬 '자판기'는 지난 2002년 제8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5개 부문을 석권한 작품으로 현대인의 조급증을 상징하는 '자판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누군가의 사랑과 인내, 희생과 양보를 통해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임을 전달했다. 이어 김형국목사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주제로 복음메시지를 전달했다. '음악과 강연의 밤'은 기존의 딱딱한 전도에서 벗어나 젊은 감각에 맞는 기획과 복음의 깊이가 어우러진 축제였다.

♡ 장로교연합 가족사랑 큰잔치





춘천장로교연합회(회장:지용찬)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5일(금) 고슴도치섬에서 가족사랑 큰잔치를 열었다. 이날 엄마와 함께 하는 축구대회, 매직쇼, 교회별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체육행사와 함께 춘천YMCA 주관으로 공동체 훈련 게임을 펼쳐서 춘천지역 장로교회간의 연합을 도모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문화복지관 입당예배



춘천제일장로교회는 5월 27일(토) 오전11시 교회설립67주년 기념 임직 및 은퇴식과 함께 문화복지관 입당예배를 성황리에 드렸다. 문화복지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와 무료공부방 등으로 춘천지역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춘천열린포럼



(가칭)춘천 포럼 준비위원회는 5월 17일(수) 오전7시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서 양병무 한국인간개발원장 초청 열린포럼을 개최하고 춘천포럼 발기인을 구성하였다. 이날 양병무원장은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경영전략'을 주제로 장성군의 혁신경영원칙을 소개하였다. 춘천포럼은 춘천의 현안문제 및 바람직한 미래건설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올바른 대안을 찾아 실천함으로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시민운동을 펼칠 것이다.

♡춘천기독청년포럼



춘천기독청년포럼이 5월 20일(토) 오후4시 동부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열렸다. 벡종국교수(경상대 공정언대상임원장)는 '2006 지방선거와 기독시민의 참여'를 주제로 "5·31지방선거를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는 훈련의 기회로 삼자"고 역설했다. 춘천기독청년포럼은 춘천지역교회에 소속한 대학·청년부의 연합모임으로 춘천의 기독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균형적인 영적성장을 돕고, 하나님나라 건설의 차세대 주역으로 서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한다.

♡ 춘천동서남북지방 교역자체육대회



춘천동서남북지방 교역자체육대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춘천서지방 주최로 5월 26일(금) 오전9시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축구 티볼 줄다리기 계주 등의 경기를 통해 목회자들 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제4회 올리클럽기도회



춘천홀리클럽(회장:이학규)은 5월 26일(금) 오후8시~10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춘천성시화를 위한 제4회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초청된 세계선교변혁운동의 지도자 루이스 부쉬목사는 세계변혁운동과 한국교회의 변혁과 춘천 성시화를 통한 생명수의 흐름에 관한 특별메세지를 전했다.

♡ 루이스 부쉬 초청회



춘천기독교연합회는 5월 27일(토) 오전8시 춘천세종호텔에서 증경회장들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루이스 부쉬 초청회를 열었다. 이날 루이스 부쉬목사의 세계변혁선교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07년 성시화 국제대회에 관해 의논하였다. 루이스 부쉬목사는 26일(금) 오후 4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교회학교 영어교사 훈련과정

-English Teaching Method for ESL Program in the Church School-

일 시 : 2006년 7월 31일(월) – 8월 4일(금)
(1일 6시간씩 5일간 총 30시간)
장 소 : 베드로 선교센터 5층 추수홀 (봄내병원과 동일 건물)
강 사 : 미국인 Ms. Suzanne Carter(교재 개발 및 저자)
수강료 : 12만원(교재 및 CD 포함)
후 원 : 수강료 외의 모든 비용은 베드로 선교센터(조은제 목사)와 국제 문맹퇴치 선교회(김남현 대표), 아가피아 강원지부(김성호 목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과정의 특징

※ 비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육(ESL)의 새로운 방법.
※ 교재 개발 및 저자의 직강.
※ 교과 내용과 복음(성경)의 접목으로 수업 중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영접케 함.
※ 교회학교 영어 프로그램에 쉽게 적용가능.
※ 수강 인원 20명 미만으로 제한.

연락 및 접수처 019-532-7720(국제 문맹퇴치 선교회) | 019-9903-1148(베드로 선교센터) | 011-372-9100(아가피아 강원지부)

광 고

사 설



내나라 내조국 나의 사랑 대한민국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지난 2월말 인도를 다녀왔다. 조영춘 목사 김범일 장로 황병호 장로와 함께 이영길 선교사의 안내를 받으며 인도의 압둘깔람 대통령을 만나 그의 집무실에서 인도의 PURA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거의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했고, 비하르 주 파티나에 머물면서 주지사를 만났으며, 선교지와 가나안 농군학교와 대학들과 사회과학 연구소와 농촌개발 연구소와 수자원개발연구소 등 여러 곳에서 연구원들과 세미나와 토론을 가졌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대통령과 주수상과 대학의 교수들과 연구소의 연구원들, 그리고 선교사의 지도로 이제 글 읽기를 깨우치기 시작하여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았다. 인도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인도대통령은 미국의 NASA에서 알아주는 물리학자이다. 그는 NASA에 머물지 않고 가난한 조국의 대통령이 되어 나라의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멋진 대통령이었다.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깊은 애국애족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나라의 정책에 대하여 실제로 연구하며 실천하려는 의욕을 보았다. 그는 비하르주 개발을 위한 한국자문단 구성을 우리 일행에게 요청할 만큼 열정을 보여주어 우리는 감동을 받았다.

일본의 신학자 내촌은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도 신앙인에게도 조국은 있다"라고 했다. 과연 우리는 내나라 내조국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검토해보아야 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지난 5월 16일 한기총 회의에 참가 하였다가 사학법 문제로 집권당인 모 정당을 방문하였으나 심한 박대를 받았다. 인구10억이 넘는 인도의 대통령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약 한 시간동안 이웃나라의 시민지도자를 영접하여 지역 개발을 위해 토론을 하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참으로 삐가 싸아 내리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여기서 박한실의 "행복을 위한 작은 책" 중의 한 부분을 생각하며 스스로의 가슴을 친다. "인간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진보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인간은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요구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족이 적은 것입니다.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결코 만족스러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랭의 말대로,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한두 가지 나은 점은 있지만, 열 가지 전부가 남보다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만족하십시오. 작은 일의 성공도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십시오.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진보하십시오."

6월 이 호국의 달에 진정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알려드려요

◆에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목동 모임(중고교 기독동아리 리더 모임)'
일시: 6월 3일(토) 오후 6:30 장소: 길선희 간사 자택

2) '에스컴 프레이즈 (청소년연합찬양집회)'
일시: 6월 17일(토) 오후 6:30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강사: 오상재 전도사(서울수정성결교회)

3) '에스컴 스텝진수련회'
일시: 6월 28일(수)~30일(금) 장소: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4) '제10회 에스컴 썸머캠프'
일시: 1차 7월 27일(목)~29일(토) 2차 8월 7일(월)~9일(수)
주제: 소아시아의 7교회 장소: 회천빈석수양관
문의: 244-5400/010-9287-5170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찬양비전 초청 여름수련회의 밤'
일시: 6월 2일(금) 오후 7시 장소: CCC 아카데미하우스

2)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
일시: 6월 26(월) ~ 30(금) 장소: 현대성우리조트
주제: CAMPUS VISION 2006 예수의 심장으로 세계를 향하여
문의: 254-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브르스길라(중보기도) 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 (한신아파트 맞은편)
대상: 가정주부(관심있는 자매님)

3) 예수전도단 선교대회 <Open 2006>
※선교대회: 7월 25일~7월 28일 장소: 이집트 카이로
※기도순례 tour: 유형별로 7월 중순~8월 초
※단기선교: 이집트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별도신청) 신청 및 문의: 02) 333-8122~3, 033) 252-1128/ www.open2006.org

◆어린이전도협회

1)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일시: 6월 19일(월) 20일(화) 22일(목) 오후 6:20~10:00
강습비: 1인당 20,000원 선착순 200명 장소: 석사감리교회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 dv]

◆IVF

1) '강원지역(강릉 · 원주 · 춘천) 연합 여름수련회'
일시: 6월 마지막주 한주간 장소: 가평 승동기도원
문의: 252-5200

◆ JDM

1) '전국 청소년 CCM CCD 경연대회'
일시: 6월 6일(화) 오후 2시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2) '춘천지구 옴커맹데이'
일시: 6월 6일(화) 오후 4시 장소: 나눔성결교회

3) '전국 대학생 여름집회'
일시: 6월 27일(화)~ 7월 1일(토) 장소: 전주 한일장신대
문의: 252-3192 / 011-9058-3192

◆ GBT

1) '비전기도회'
일시: 6월 5일(월) 오후 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발음: 심재욱 선교사(파푸아 뉴기니)

2) '전국 위클리프스쿨 평가회'
일시: 6월 18일(주일)~20일(화) 장소: 부산 수영로교회

3) 'GBT춘천지부 정기이사회'
일시: 6월 21일(수) 오전 11시

4) '캠프위클리프주최 선교사 후원회 모임'
일시: 6월 23일(금)~24일(토) 장소: 춘천 집다리골

5) 2006 선교한국 '잊혀진 부르심'
춘천지역참가문의 : 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033@gbt.or.kr]

◆세계태권도선교회 '알렐루야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 태권도체육관
문의: 263-6022 011-9791-6055

◆여호수아워십댄싱선교회 '워십선교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경원대 태권도체육관
문의: 263-6022 017-374-2440

◆교경협의회

1) '연합부흥집회'
일시: 6월 11일(주일)~14수) 오후 7:30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2) '세미나'
일시: 6월 14(수) 오전11시~12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문의: 252-1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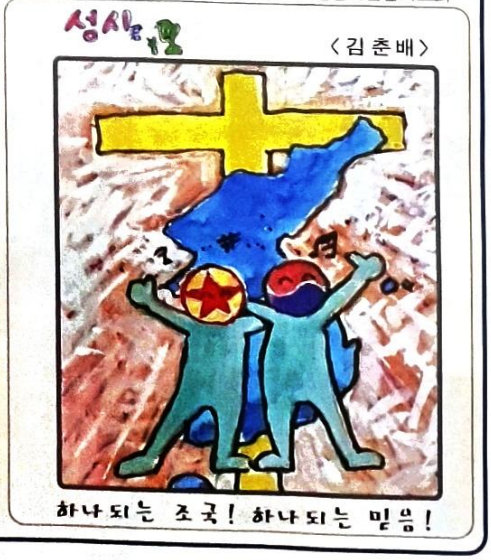
◆춘천남지방 원로장로위로회
일시: 6월 (6일(화))
장소: 속초(오전9시 석사교회에서 출발)

◆ 홀리클럽

1) '창립 10주년 기념 성시축제'
일시: 6월 9일(금) 장소: 춘천안디옥교회
내용: 오후2시 기념예배, 오후3시 성시포럼, 오후7시 특별성회
강사: 오정현 목사, 명성훈 목사 문의: 이학규장로 017-370-4831

◆제24기 빌립전도특공대 훈련
장소: 춘일감리교회 내용: 전도에 대한 모든 것
기간: 6월8일~8월24일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오후5시
문의: 간사 최은영 전도사 011-9614-3582
홍순석 목사 010-4899-1530 (회비:1인당 16만원)

◆이단 연구와 정통신앙에 대한 특별세미나
일시: 6월 14일(수) 오후 7시30분 장소: 춘천제일감리교회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인트로단계' 3기모집)"

'영어회화 기적이 일어난다!' '단 한 달 만에 입이 열린다!'
'이미 혼련 수료자들이 입증을 하고 있다'
'반신반의로 찾던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100% 등록한다!'

1.개강일시: 2006년 6월 19일(월) 오후 6시50분(시간엄수)
2.기 간 6월 19일~7월 14일(월,화,목,금 7:00~10:00PM) 1일 3시간씩 1개월(16일간 총48시간) 학습 및 훈련
3.훈련단계 및 교재: '인트로단계' 교재 「Interchange(Intro)」-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4.장 소: '꿈이있는교회' (교통편: 카풀, 25번23번26번28번버스)
5.본훈련 소는 :
①초6년중 · 고등학생들_ 참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해결!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②영어 회화를 공부하다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
③초등 생부터 목사님, 선교사님, 박사님, 영어선생님, 유학준비생, 주부들이 한자리에서!
④출국이 임박한 분, 선교지로 파송될 분, 최 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은 분.
⑤영어비법을 통해서 회화뿐만이니라 영어공부 전반(리스닝,발음,문법,빠른 독해)에 대해 중요한 기초를 확립할 수 있으므로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잃은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6.훈련등록마감: 6월 14일(수)까지 (선착순 42명). (☎264-0691,011-386-6239)
7.공개 설명회 6월 10일(토) 오후 5시~6시
#첫시간 이외에는 청강을 금합니다. 모든 훈련생은 반드시 첫 시간(16일)을 참석해야 하며, 훈련기간중 이틀을 결석 시에는 다음 단계 훈련생자격이 상실됩니다.
*참조 : '춘천중앙감리교회' 홈페이지 (http://www.chmchurch.org/main.htm)커뮤니티 자유게시판 「800영어회화」를 참고하세요

훈련생 후기문
- "이 프로그램은 결코 쉽수를 기르쳐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속적인 훈련방법을 제시 하며 혼자서도 꾸준히할 수 있는 방법을 기르쳐 드리지요 하루에 3시간씩 힘차게!) 약쓰고 나면 말끔한 아니라기본적인 회화의패턴을 터득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때일 같이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 않을 수 없을 지요? 참고로 저는 인트로 1기를 수료한 3개월 째 시험 학원 소지자입니다. 정말 영어에 한이 맺힌 예우가 위해 이곳 저곳 안기본대가입지요 아무튼 현명한 선생님께서 우연히 찾아온 좋은 기회를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리스닝 시험 때마다 속도가너무 느리게 들려요 어떠요" -춘여고 1년-인트로단계까지 훈련자-
- "진짜 상담에서 내 말을 못 알아들은 제군에 미국 대학원 교재가 본명히 알아들어요" -미국대학원 합격자-
- "유창하게는 잘안되지만 우연히 만난 캐나다 원어민과 1시간이상은 대화가 돼요 신기해요" -춘중 2년-
- "이번 원어민 만나도 전번 하이하기할 수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고등출신 50대 주부-
- "영화가 들려요" "이번 자신감이 생겨요" "영어가너무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렵게 느껴지던 문법이 쉽게 정리가 되구요 이제는 본격적 자신감을 가지고독해를 해고 또한 속도도 아주 빨라졌어요" -초등학생부터 총 고생 50대 주부까지 등다수-

본 훈련원 훈련일정
「인트로단계」 1개월 완성으로 영어회화의 기초를 완성하고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과 영어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음(기초) 교재 「interchange Intro」 -캠브리지대학 출판사-
「1 단계」 1개월 완성으로 영어권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초급) 교재 「new interchange 1」 -캠브리지대학출판사-
「2 단계」 1개월 완성으로 영어권에서 일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중급) 교재 「new interchange 2」 -캠브리지대학 출판사-
「3 단계」 1개월 완성으로 영어권 학교에서 공부도 수업을 할 수있는 수준 고급 교재 「new interchange 3」 -캠브리지대학출판사-

- 꿈이 있는 선교 언어 훈련원 -